

삼성생명 ‘빅3’, 박지수 집중수비 통할까

〈배혜윤·하킨스·김한별〉

정규리그는 KB스타즈 5승2패 우원
우원은행 꺾은 삼성생명 무시 못해
감초 역 염윤아-김보미 대결도 관심



‘우원은행 2018~2019 여자프로농구’는 마지막 무대만 남겨뒀다.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한 청주 KB스타즈와 플레이오프(PO)에서 아산 우원은행을 2승1패로 꺾은 용인 삼성생명이 21일부터 5전 3선승제의 챔피언결정전을 펼친다.

정규리그 상대전적은 KB스타즈가 5승2패로 앞섰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외국인 선수를 티아나 하킨스(28·190cm)로 교체한 이후 KB스타즈와의 3차례 대결에서 1승2패를 기록했다. 3경기 모두 접전이었다. PO와 마찬가지로 챔피언결정전에서



안덕수 감독

임근배 감독

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박지수 수비 물량공세 가능한 삼성생명

KB스타즈의 박지수(21·193cm)는 프로 데뷔 이후 가장 위력적인 플레이를 선보이

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규리그 최우수 선수(MVP)상도 거머쥐었다. 박지수의 활동 반경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삼성생명에 게는 큰 과제다.

삼성생명은 다양한 카드를 준비중이다. 포스트 자원인 배혜윤(30·182cm)과 하킨스에게 번갈아 박지수 수비를 맡길 전망이다. 간혹 김한별(33·175cm)이 박지수에게 불을 수도 있다. 김한별은 신장은 작지만 힘에서는 박지수에게 밀리지 않는다. 2년 전 PO에서도 김한별이 박지수를 봉쇄하는데 성공한 적이 있다. 박지수가 2년 전보다 월등하게 성장했지만 김한별과의 몸싸움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기묘한 운영 염윤아와 김보미의 격돌

염윤아(32·177cm)는 자유계약선수(F A) 자격으로 KB스타즈 유니폼을 입고 활약한 첫 시즌 팀의 정규리그 우승에 큰 역

활을 했다. 다재다능함을 갖춘 염윤아는 필요에 따라 외곽과 포스트를 오가며 감초 역할을 해내고 있다. 경기를 조율하는 포인트 가드 역할까지 수행한다. 이번 챔피언결정전에서도 중요한 키를 가진 선수로 손꼽힌다.

그런데 염윤아의 FA 이적으로 팀을 옮긴 선수가 삼성생명의 김보미(33·176cm)다. 염윤아의 전 소속팀 KEB하나은행은 보상 선수로 KB스타즈의 김보미를 영입했다. 비슷한 시기에 FA 고이리틀 KEB하나은행에게 내준 삼성생명은 보상선수로 김보미를 선택했다. 김보미는 삼성생명에서 이번 시즌 식스맨으로 뛰며 장기간 외곽 슛으로 팀에 보탬이 됐다. 몸 상태가 완벽하진 않지만 지난 시즌까지 함께 뛰었던 동료들을 상대로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두 선수의 활약에 따라 두 팀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수 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부적절한 세리머니로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호날두는 13일(한국시간)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이 3-0으로 끝난 뒤 승리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외설적인 동작을 취해 논란을 일으켰다. 토리노(이탈리아) | AP뉴시스

‘외설 세리머니’ 호날두
출전 정지? 벌금 징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가 부적절한 세리머니 때문에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영국 BBC는 19일(한국시간) “호날두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16강전 2차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해 유럽축구연맹(UEFA)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UEFA는 21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호날두의 세리머니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호날두는 13일 열린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헤트트릭을 기록하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팀의 8강행을 이끌었다. 1차전에서 0-2로 패했던 유벤투스는 2차전에서 호날두의 3골 덕분에 1,2차전 합계 3-2를 만들고 기적적으로 8강 티켓을 손에 넣었다.

문제는 경기가 끝난 뒤의 행동이다.

승리의 기쁨을 주체하지 못한 호날두는 관중석을 향해 자신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렸다가 사타구니 쪽으로 가져가는 외설적인 동작을 취했다. 이는 1차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메오네 감독이 팀의 득점 이후 자신의 사타구니 부위를 손으로 잡고 다소 민망한 행동을 한 것을 겨냥한 맞대응 세리머니였다.

당시 시메오네 감독은 UEFA로부터 출전정지가 아닌 2만 유로(약 255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호날두도 같은 상황이다. 세리머니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출전정지 처분이 나온다면 호날두는 4월 11일 열리는 아약스(네덜란드)와 챔스리그 8강 1차전에 결장할 수 있다. 다만 현지 보도에 따르면, 호날두는 시메오네 감독처럼 벌금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최현철 기자 choihec2@donga.com



이승우 “막내가 생겼어요” 축구국가대표팀이 19일부터 완전체 훈련에 돌입했다. 선수들은 밝은 분위기속에 훈련을 진행했다. 황의조(왼쪽)와 이승우가 훈련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며 환하게 웃고 있다(왼쪽 사진). 대표팀 주장 손흥민(가운데)이 A대표팀에 첫 승선한 이강인(오른쪽), 백승호와 얘기하고 있다. 파주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이강인·백승호 왔다”…TV 카메라 9대·취재진 100명 우르르

현장리포트

19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는 평소보다 떠들썩했다. 요 근래 대한민국 축구에서 가장 ‘핫’한 특급 선수들이 등장하면서다.

유럽 빅 리그 중 하나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폭풍 질주하는 이강인(18·발렌시아CF)과 백승호(22·지로나)가 드디어 국가대표팀 훈련캠프에 입성했다. 대표팀은 22일 울산에서 볼리비아와 겨룬 뒤 26일 서울 삼암별로 장소를 옮겨 콜롬비아

와 평가전을 갖는다.

9월 아시아 지역예선이 시작되는 2022카타르월드컵을 대비한 세대교체의 일환으로 파울루 벤투 감독(50·포르투갈)은 젊은 피를 대거 수혈했다. 소속 팀과 항공편 일정으로 선배들보다 하루 늦은 이날 오전 NFC에 입소한 새내기 태극전사들은 예상대로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했다.

이들이 스탠딩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는 TV카메라가 무려 9대나 설치돼 있었고, 사진기자들을 포함한 약 100여 명의 취재진이 주변을 에워쌌다. 단일 A매치 소집으로 보기 드문, 월드컵 못지않은 대단한 열

기였다.

물론 대표팀에 처음 합류한 만큼 내용이 대단할 수는 없었다. 다양한 질문이 돌에게 쇄도했으나 대답은 지극히 평범했다. “최선을 다할 것이다”, “좋은 모습을 보여 A매치 출전하고 싶다”, “어떠한 포지션을 맡든 잘 소화할 수 있다” 등의 답이 주로 나왔다.

관심은 대표팀의 공식훈련으로까지 이어졌다. 초반 20분만 공개됐지만 자리를 비운 매체는 거의 없었다. 영건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시선이 모아졌고, 카메라 셔터소리가 끊임없이 울렸다. 다만 주어진

첫 훈련 프로그램은 달랐다. 백승호는 같은 날 입소한 ‘대선배’ 이청용(31·Vfl보훔)과 함께 가벼운 러닝을 했고, 이강인은 형님들과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몸을 풀었다. 지극히 평이한 장면이 특별해 보였던 것은 그만큼 새로운 스타의 등장을 간절하게 기다렸기 때문이다.

대표팀 관계자는 “한동안 접할 수 없었던 상상 이상의 관심이다. 파스한 봄기운이 찾아든 느낌이다. 지금의 유쾌한 기류가 대표팀에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파주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베테랑 이청용의 담담한 홀로서기

기성용·구자철 은퇴에 최고참급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표팀에 모범

베테랑 미드필더 이청용(31·Vfl보훔)이 본격적인 홀로서기에 나섰다. 수많은 추억을 공유한 친구들이 떠난 축구국가대표팀에서의 여정이다.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직후 기성용(30·뉴캐슬 유나이티드)과 구자철(30·아우크스부르크)이 태극마크를 반납하면서 그는 대표팀 최



이청용

고참급이 됐다. 대표팀은 볼리비아(22일·울산문수월드컵경기장)~콜롬비아(26일·서울월드컵경기장)로 이어질 3월 A매치 시리즈를 위해 18일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모여 풀 트레이닝에 돌입했다. 파울루 벤투 감독(50·포르투갈)의 호출을 받은 태극전사 27명 중 이청용의 나이는 오른쪽 풀백 최철순(32·전북

현대) 다음이고, 또 가장 많은 A매치(87경기·8골)를 소화했다.

그만큼 더 무거워진 어깨. 솔직히 고민이 많다. 2008년 5월부터 가슴에 품은 태극마크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나 동기부여를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센추리 클럽(A매치 100회 이상 출전) 가입을 바라보는 건 개인 성향에 맞지 않고, 3년 후인 2022카타르월드컵도 너무 멀다. “나으로 대표팀에서 배제될 일은 없다”는 것이 벤투 감독의 입장이라고는 하나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외로운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그래도 이청용은 프로페셔널이다. 프로에 데뷔하고 한결같았던 겸손한 모습처럼

묵묵하게 제 역할을 할 뿐이다. 지난 주말 소속 팀 경기에 참여하느라 가장 늦게 NFC에 입소한 19일 풍경도 그랬다. 소집명단을 확인한 뒤 마음의 준비를 했고, 독일 보훔에서 국제공항이 위치한 프랑크푸르트까지 직접 차를 몰아 두 시간을 달렸다. 이어 10시간 넘은 비행 직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NFC로 향했다. 사랑하는 아기와와 만남은 공항에서 파주로 이동하던 한 시간여에 불과했다.

깜짝 은퇴선언보다는 물 흐르듯 매끄러운 과정을 택한 이청용은 그렇게 ‘평소와 다름없이’, 새로운 출발선에 선 벤투호에서의 또 다른 하루를 시작했다. 파주 | 남정현 기자